희망과 도전의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김 주 수
농림부 축산국장

낙농산업은 그동안 용도에 관계없이 검사성적에 따라 고정가격을 적용하던 원유가격을 시유용과 가공용으로 차등화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로 전환함으로서 저가 가공용 수입을 막고 국내산 가공용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연간 250천톤 수준의 국내가공용 원유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낙농인 여러분과 축산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더욱 큰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축산업은 숱한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축산인들이 앞장서 시련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광과 성취가 함께한 저력의 역사였습니다.

새세기, 새천년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한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봄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축산업이 그 존립기반까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산지돼지 가격이 지난해 105천원까지 폭락하는 큰 위기를 맞았으나 지혜와 중지를 모아 대응한 결과 최근에는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제2의 양돈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바쳤던 것보다도 훨씬 더 피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의 역사에 2001년도는 어느해보다 뜻깊고 중요한 1년입니다. 급변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의 한해인 것입니다.

쇠고기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원년으로서 한우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하고, 돼지의 가격 및 수급이 불안정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재발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위생과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 · 위생 · 안전성 · 품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축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21세기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축산물의 구조적 가격불안 등에 대비하여 상시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급안정을 추진해 나가는 체제로 변경해 나갈 것입니다.

양돈 · 양계산업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와 양돈 · 양계축협조합, 유통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육두수 감축 · 할당 등 축종별 수급안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 ·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필요한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돈 · 모돈 및 노계도태 장려금이나 조기 출하장려금 등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인기부위 소비촉진, 가공품 수출촉진 등 수요기반 확대에도 주력하여 가격 및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우의 경우는 사육기반유지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기존의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보완하는 등 개방적응 기간동안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개방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고 경영안정장치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전금 지급한도액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여 안심하고 사육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산장려금을 10~20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한우수소 거세장려금도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낙농산업은 그동안 용도에 관계없이 검사성적에 따라 고정가격을 적용하던 원유가격을 시유용과 가공용으로 차등화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로 전환함으로서 저가 가공용 수입을 막고 국내산 가공용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연간 250천톤 수준의 국내가공용 원유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유일원화 가입율을 내년에는 90%이상으로 높여 낙농진흥회를 통한 계획생산 · 공급으로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축산물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도축장의 정비를 통해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한 정육점이 규모화·현대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육류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구분 판매제 정착, 축산물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육류소비자 권장가격을 발표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및 회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위생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함으로서 최단시일내에 청정화를 이룩하여 구제역 발생 이전상태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선진국형 축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련 시책을 구체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부와 축산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최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지면 환경도 살리면서 소득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형 축산업, 첨단신기술이 접목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젼과 희망을 잃지 말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새천년 선진축산시대를 기필코 열어나갈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낙농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필자연락처 : 02-504-9430〉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pH 안정)

영월석회공업사

TEL : (033)372-5837, 5618, 5296, 6878
FAX : (033)372-5889
야간 : (033)372-5293